

## 성화 마: 구원받은 성도의 두 가지 본성: 육신이 문제다

갈5:16-17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여정으로 들어섰다. 성화는 매우 힘든 일, 잘 가르치지 않는 교리,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난주 성화의 세 가지 방해 요소: 세상, 육신, 마귀  
오늘은 < > 우리 내부와 관계가 있는 육신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보려 한다.

육신, 육체, 혹은 육의 정체: 사룩스, flesh 고깃덩어리, 신약에만 150회 이상

미들타운바이블처치, 조지 젤러의 글, 교육 설교

### 우리의 딜렘마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는가? 왜 악한 생각, 욕망 등이 떠오르는가?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가? 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가? 왜 마치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가?(고전3:3), 이런 삶을 살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느끼면서도.

### 불신자, 본성에 속한 사람, 자연인의 한 가지 본성

#### 1. (\*) 렘17:9

극도로 사악하다.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들어 있다.

하나님의 평가: 불신자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사람과 같다.

이것은 나병이나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병이다. 이름은 죄성이다.

#### 2. (\*) 예수님의 확증(막7:20-23)

사람의 마음은 원래 악하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전쟁, 기근, 가난, 오염, 악한 정부가 아니라 악한 마음이다. 즉 죄성이다.

#### 3. 마7:9-11, 좋은 사람이 있다. 엄마가 있다. 좋은 아빠가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 11절 너희는 악하다. 즉 너희는 첫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악한 마음의 사람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 4. (\*) 롬3:9-12, 13-19도 참조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잡을 수 있다. 점, 흐트러진 머리, 옷깃 등

하나님이 어떤 매직 거울을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게 한다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악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3:12).

(\*) 그러므로 불신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롬8:8; 히11:6).

(\*) 우리의 과거: 딤후3:3, 구원받기 전에는 한 가지 본성만 가진 사람, 겉으로 보기에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 다 도토리 키재기, 그러나 구원

#### 5. (\*) 렘13:23,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육신은 부패한 옛 본성

### 구원받은 성도의 두 가지 본성

(\*) 구원받는 순간(엡4:24):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벧후1:4)

(\*)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후5:17).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과거의 옛 본성은 사라지는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100% 바뀌었는가? 아니면 50% 정도만 바뀌었는가?

(\*)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요일1:8).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역시 거짓말쟁이가 된다(요일1:10).

결론: 옛 본성은 박멸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

약3:2 여러 가지 일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가기 전까지 우리의 옛 본성은 박멸되지 않고 우리 속에 존재한다.

(\*) 롬7:15-18, (\*) 롬7:21-24

## 옛 본성(육신)의 특징

### 1. 옛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마음은 극도로 악한 채로 남아 있다. 구원받은 뒤에는 오히려 더 사악하게 보인다. 요3:6,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즉 육신은 여전히 그대로 육신으로 남아 있다.

(\*) 그래서 육신은 여전히 육신의 일들을 만들어 낸다(갈5:19-21).

(\*) 사람의 육신은 절대로 성경의 열매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갈5:22-23).

### 2. 옛 본성은 결코 향상되지 않는다. 부패한 상태 그대로, 처참한 상태 그대로,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 3. 옛 본성은 선하게 변형되지 않는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이다. 요3:6을 보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이 영으로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옛 본성은 이전과 동일하다(엡4:22).

새롭게 출생하는 것은 창조이지 변형이 아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다. 새 것이 생기는 것이지 옛 것이 바뀌거나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옛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롬12:2, 고후3:18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주님 안에서 자란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조금씩 변화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된다.

### 4. 옛 본성은 정화될 수 없다.

오염된 우물과 같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없다.

우물 주변을 환경미화해도 우물은 여전히 오염된 물을 낸다.

두레박, 줄 새로 장착, 마찬가지로, 왜 근원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첫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사람의 옛 본성은 오염된 물을 내는 우물이 되고 말았다.

### 5. 옛 본성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롬8:8-9를 보라.

(\*) 잠15:8, 희생예물, 15:9, 그가 가는 길, 15:26 그의 생각들

### 6. 옛 본성은 죽음이 우리 몸과 영혼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한다.

성도에게도 옛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롬7장 24절, 사도 바울의 처절한 외침

### 7.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성도에게는 옛 본성과 새 본성 간의 극력한 다툼이 있다.

불신자, 새 본성이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불신자에게도 매일 선과 악의 다툼이 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으므로, 양심, 악한 일을 하면 우리를 정죄한다. 불신자에게도 있다. 다른 억제 요소들이 있다. 부모, 경찰, 명예 그러므로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으므로 여러 모양의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선을 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옛 본성과 새 본성 간의 갈등은 없다.

### 8. (\*) 구원받으면 새 본성이 창조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갈5:16-17

육신은 옛 본성, 부패한 것, 극도로 사악한 것

내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성령님 안에서 걷기를 선택할 수 있다. 육신 안에서 걷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5:16). 선도가 성령님 안에서 걷지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 죄를 확증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힘에서 벗어나려고 성화의 과정을 매일 겪는다.

##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사람: 옛 본성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사람, 자연적인 출생, 첫 아담의 특징, 육신에서 난 사람

새 사람: 새 본성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사람, 새로운 출생,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특징, 영에서 난 사람

옛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요한 것: 옛 본성처럼 옛 사람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 롬6:6,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옛 사람이 죽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 옛 본성도 죽는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옛 사람의 행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옛 사람의 행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향해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처리 방법(롬6:11)

### 두 가지 오류

1. 이 땅에서 나는 죄가 없는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죄성이 없다.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다. 틀린 말이다(요일1:8, 10).
2. 나는 원래 불완전한 사람이야. 그러니 구원받은 다음에도 매일 죄를 짓는 수밖에 없어. 자포자기, 그리고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롬5:20).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롬6:1).

(\*) 이제는 우리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써야 한다(롬6:17-19).

아침 기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드리는 기도

요일2:1,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제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의 소원대로 걸으려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삶을 주관해 주셔서 제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를 행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녁 기도: 죄를 지은 뒤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요일2:1,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자께서 제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들을 자백합니다. 완전한 용서와 교제의 회복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깨끗하게 하시는 권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롬7:15-24, 동일한 나, Old, New

바울의 새 본성은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옛 본성이 가로 막는다(15).

심각한 갈등, 처참한 외침(24), 이런 외침이 끝이 아니다.

승리가 있다(7:25), 그리고 8:1

### 어떻게 승리하는가?

인디언의 고백: 선교사님 제 마음속에서 두 마리 개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하얀 개와 검은 개입니다.

선교사: 어떤 개가 이깁니까? 인디언: 제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옛 본성은 굶기고 새 본성을 먹이면 승리한다. 어떻게 새 본성을 먹일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

(\*) 롬13:14, 갈5:16, 롬8:4

결론: 성화는 죄의 힘에서 구원받는 것, 일생의 과정

옛 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의 소원을 추구해야 한다. 승리를 내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따라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교제해야 한다.